



(OEM)에서 자체 모델 개발 또는 제조자개발생산(ODM)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140억원 규모의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실증센터' 구축과 220억원 규모의 '가변 플랫폼 기반 중소형 전기버스·트럭 운영시스템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 부품기업들의 기술 자립화를 위한 ▲ 전기·자율차산업 육성사업(346억원 규모) ▲ 전기동력 자동차 전기·전장 산업생태계 구축사업(30억원 규모) ▲ 친환경 전기·전장부품 시장 창출 지원사업(56억원 규모) 등 전기차 핵심부품 개발을 통해 조기양산을 위한 사업도 지원한다. 시는 전북 전기자동차 얼라이언스를 구성·운영하고 초소형 전기자동차 사업 규제 자유 특구 지정, 인력양성도 추진한다. 군산형 일자리 모델은 명신그룹이 주축이 된 '명신 컨소시엄'과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MPS코리아가 중심이 된 '새만금

컨소시엄' 등 2개 컨소시엄으로 진행된다. 이들 컨소시엄은 2022년까지 4천122억원을 투자, 전기차 17만7천여대를 생산하고 1천900여명을 고용한다. 먼저 명신 컨소시엄은 2천675억원을 투입해 옛 GM 군산공장(129만㎡)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차를 생산한다. 새만금 컨소시엄은 1천447억원을 들여 새만금 산업단지 제1공구 39만㎡에 기업별로 전기차 생산라인을 만든다.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각각 장점이 있는 전기버스, 전기 트럭, 배달형 전기차, 골프 카트 등을 생산한다. 오래전부터 자동차 산업이 발달해 800개의 부품업체와 10여개의 연구기관이 있고 숙련된 노동자도 많아 이를 활용하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새만금 주행시험장, 전기자율차 테스트베드 등의 기반 시설이 집적돼 있고 새만금 신항만, 공항

1,2,3 상공에서 촬영한 새만금 산업단지

전북 군산, 전기차 메카로 거듭난다 '군산형 일자리' 첫발

군산을 대한민국 전기차 산업의 메카로 만들려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첫발을 내디딘 가운데 군산시가 기틀 다지기에 나섰다. 군산시에 따르면 도는 '군산 상생형 일자리'가 정착하도록 상생협의회 조직화, 선진 임금제도 도입, 수평적 계열화 방안 마련, 완성차업체 자체 플랫폼 구축, 부품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개발 지원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한다. '새만금 컨소시엄'에 포함된 에디슨모터스와 대창모

터스, MPS코리아는 올해 연말쯤 착공식 후 내년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간다. 군산시는 이들 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내년 5~6월이면 협약안의 효력이 발효될 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완성차 업체의 자체 전기차 모델개발을 돕고 부품업체의 전기차 핵심 전기·전자 부품과 공용부품 개발을 지원한다. 초기 생산방식인 주문자상표부착생산





과 같은 최적의 물류 및 수출 인프라를 갖추게 되는 점도 강점이다. 특히 지난 11월 12일에는 전북이 정부로부터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되며 친환경·미래형 자동차 생산 기지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4일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서 “지역의 신산업 육성 의지와 노사민정 대타협, 정부 지원이 더해져 군산은 전기차 메카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전기차 클러

스터가 새롭게 조성되고 2022년까지 4천122억 원 투자와 함께 1천900여개의 직접 고용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저 좋은 일자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며 “전기차 관련 사업은 우리 군산에서 가장 하기 좋고 꼭 먼저 찾아가야 하는 곳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1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2 문 대통령과 강임준 군산시장(왼쪽에서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3 문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4 문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새로운 도약'이라고 적힌 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
꿈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